호 주

2003. 9

최 윤 정
(yjchoi@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768만km^2

○ 인　　구: 1,941만 (2003. 2)

○ 기　　후: 온대(남부), 아열대(북부), 내륙지방은 건조

○ 시 간 대: GMT보다 10시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켄버라

□ 정　　치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총　　리 : 존 하워드(John Howard)

○ 의회형태: 양원제

○ 주요정당: 자유당(Liberal Party), 국민당(National Party)

□ 사회·문화

○ 민　　족: 유럽계(89.2%), 아시아계(4.1%)

○ 언　　어: 영어

○ 종　　교: 성공회(27%), 카톨릭(26%), 연합교(5%), 장로교(4.5%)

○ 공 휴 일: 1월 26일(호주의 날), 4월 25일(Anzac Day), 6월 둘째월요일(여왕생일)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10월

○ 협정체결: 무역협정(65. 9), 원자력협정(79. 5), 이중과세방지협정(82. 11)

○ 취항도시: 서울-시드니(주 3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주 요 지 표	단 위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년 6월
국내총생산	(십억달러)	404.9	362.3	391.8	377.8	357.4	398.7	
1인당 GDP	(달러)	20,426	21,218	21,976	22,429	22,580	22,580	
GDP증가율	(%)	3.7	5.2	4.5	2.8	2.7	3.8	2.9 (1~3월)
수 출	(십억달러)	64.9	55.9	56.1	64.0	63.7	65.1	44.6
수 입	(십억달러)	63.0	61.2	65.8	68.8	61.8	70.3	52.5
경상수지	(십억달러)	-12.4	-18.0	-23.0	-15.1	-8.7	-17.8	-6.3 (1~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5.3	2.7	4.5	4.4	3.0	2.7 (4~6월)
실 업 률	(%)	8.6	8.0	7.0	6.8	6.3	6.1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16.8	14.6	21.2	18.1	18.0	20.7	27.5
환율(평균)	(A$/달러)	1.35	1.59	1.55	1.72	1.93	1.84	1.77

주: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까지
자료: EIU, *Country Report*, August 2003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 향후 경제전망

	2003/04		2004/05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실질 GDP성장률(%)	2.7	2.9	3.3	3.5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9	2.4	2.9
실업률(%)	6.4	6.7	6.2	6.8
경상수지(십억 달러)	-25.0	-4.8 (GDP 대비)	-24.6	-4.3 (GDP 대비)
환율(평균)(A$/달러)	1.55	0.64	1.53	0.67

자료: EIU, *Country Report Update; Australia*, August 2003.
Global Insight, *Asia Economic Outlook*, August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2003년 6월)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광물성 연료	1,717	기계류 및 운송기기	5,335
2	원자재(연료 제외)	1,673	기타 제조품	1,357
3	식품 및 가축	1,230	제조품	1,197
4	기타 제조품	1,123	화학제품	1,148
5	기계류 및 운송기기	1,013	연료	821

주 : 품목분류는 SITC 1단위 기준.
자료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나. 주요 교역국 수출입 (2002년)

(단위 : 억 호주 달러, %)

순 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	국 가	금 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
1	일 본	222 (-6.8)	미 국	232 (8.4)
2	미 국	115 (-3.4)	일 본	157 (2.9)
3	중 국	84 (10.0)	중 국	128 (25.0)
4	한 국	100 (5.0)	독 일	-
5	뉴질랜드	79 (10.5)	영 국	58 (-7.0)
6	영 국	56 (8.0)	뉴질랜드	49 (3.4)
7	싱가폴	-	한 국	480 (3.6)

자료: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position of Trade - Australia 2002.* March 2003.

4. 한·호주 경제관계

가. 교역

□ 교역비중

○ 호주는 한국의 12대 수출국, 8대 수입국(2003. 7)
○ 한국은 호주의 3대 수출국(2002), 7대 수입국(2002)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7
수 출	1,808	2,211	2,791	2,426	2,606	2,173	2,340	1,629
수 입	6,272	5,894	4,615	4,672	5,959	5,534	5,973	3,247
무역수지	-4,464	-3,683	-1,824	-2,246	-3,352	-3,360	-3,634	-1,618

자료 : KOTIS

나. 투자

□ 투자비중

○ 호주는 한국의 11대 해외투자국(2002)
○ 한국은 호주의 15대 외국인직접투자국(2001)

□ 한국의 對호주 직접투자추이(신고기준)

(단위: 건,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1~5)
건 수	17	26	16	17	3
금 액	53,689	23,082	10,715	54,081	6,9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업종별 對호주 직접투자 현황(2003. 6. 기준 누적치)

(단위: 건, 천 달러)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숙박음식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합 계
건 수	8	23	52	4	72	8	1	29	38	212
금 액	45,464	260,445	50,826	11,157	205,843	1,682	194	22,601	13,588	611,8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비고: 금융보험업 분야 투자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호주의 對한국 직접투자추이(신고수리 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	누계
건 수(건)	11	14	14	29	32	23	12	178
금액(천 달러)	5,661	2,642	275,508	78,838	23,395	2,286	112,685	530,526

주: 누계는 196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수치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KOTRA 외국인투자진흥센타(T: 3460-7574)

Ⅲ. 경제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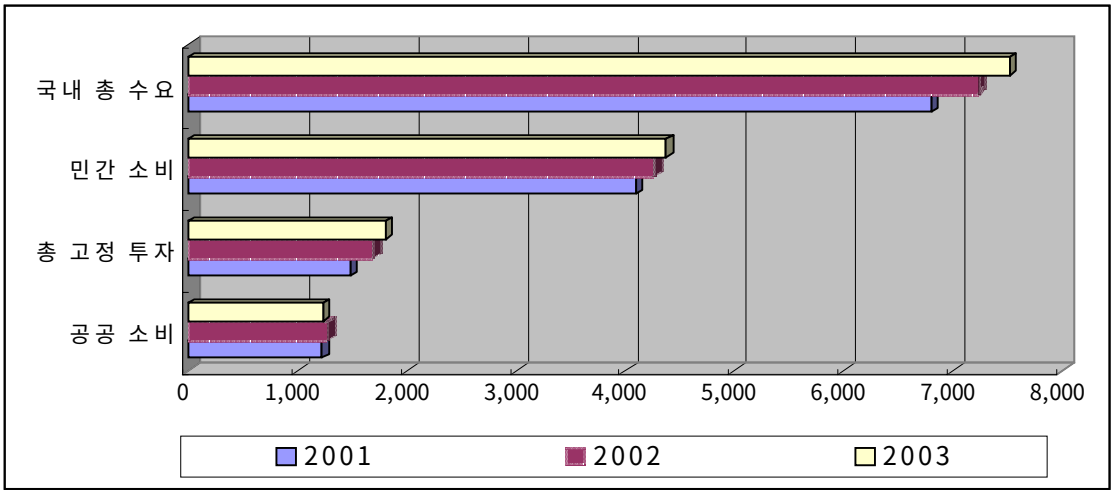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호주 정부는 2003년 1~3월간 호주의 GDP가 세계 경제 불안과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9%, 전분기 대비 0.7% 증가(2002년 4/4분기 GDP 증가율 0.3%의 두 배가 넘는 수치)했다고 발표했음.

- 이는 주로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증가와 올해 초 단행한 중앙은행의 단기 이자율 인하 등에 기이한 것으로 평가됨.
  - ○ 이와 같은 민간 소비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자산가치의 상승,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높은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 낮은 이자율과 금융규제완화 등에 의한 자금 조달의 용이성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최근 호주의 국내 총 수요 추이

(단위: 억 호주 달러)



자료: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그러나 세계 경기 불안과 호주 달러 평가절상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로는 가뭄의 영향이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확대되고 관광산업 침체와 건설업 위축으로 고용이 감소하는데 따라 민간 소비 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호주의 2002/03 회계연도 농업 생산은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가계소득 및 소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2002년 3/4분기부터 가시화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 하락은 경기 위축의 우려를 낳고 있음.

-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2003/04 회계연도 호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3.25%로, OECD, EIU 등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은 3%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음.

□ 이에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5월 13일 수입세의 대폭 인하, 국방예산 증강, 가뭄구제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2003/0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섰음.

- 동 예산안이 2005년 4월 이전에 개최키로 되어있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그보다는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호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 7월 1일부터 동 예산안을 시행할 경우 2003/04 회계연도 호주 연방 정부의 재정흑자는 49억 호주 달러에서 22억 호주 달러(미화 약 14억 6천만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임.

□ 호주 경제는 건실한 거시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2004년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장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호주 경제는 대내외적인 충격에 탄력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고용 확대, 물가안정, 공공재정 건전성(공공부문 부채는 감소하고 있고, 연금정책도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한 수준) 등으로 튼튼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호주 연방정부의 과감한 예산안 편성의 저변에는 2004/05 회계연도에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경제전망과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호주의 경제발전 과제

가. 경상수지 적자개선

□ 호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30% 이상으로 선진국중 비교적 높은 편이며, 산업 및 자원개발을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미, 일을 포함하는 아·태경제권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 2000/01 회계연도 교역량을 기준으로 일본(16.3%), 미국(14.3%), ASEAN(14%) 등 APEC 회원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72%에 달하였음.

□ 이처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개선양상은 비록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개선될 전망임.

- 호주정부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1년 비교적 높은 GDP 증가율 및 교역수지 개선을 이룬 호주경제가 2003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 특히 아시아 경제의 회복이라는 외적인 호재와 국내 수요의 강세에 힘입어 호주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개선과 빠른 경제성장을 확신하고 있음.

나. 산업구조 개편

□ 호주의 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서비스업과 천연자원에 의존한 1차산업 중심구조를 이루고 있음.

- GDP에 대한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광업 및 제조업이 16.5%, 농림수산업이 3.0% 정도임.

- 취업인구의 산업별 비중도 서비스업이 81.3%이고 광업 및 제조업이 13.8%, 농림수산업 4.9%임.

□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 역시 2002/03 회계연도 호주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과 원자재, 식품 등의 1차 산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승용차, 컴퓨터, 원유 및 통신장비를 비롯한 공산품(78.6%)임.

다. 경제개혁의 단행

□ 호주는 1990년대 말까지 8~9%대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되어왔으나, 1999년 말부터 7%이하로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호주는 최저임금 및 노동관련 조건을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통제 및 지불하고 있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일련의 개혁정책의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크게 재고되고 있음.
  - ○ 1996년 11월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단행되었고, 정부의 꾸준한 개혁정책 추진의 결과,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노조의 입지도 많이 약화되고 있음.
  - ○ 최근 직장관계법 및 신노동법의 성립에 따라 민간기업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장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음.

3. 한·호주 경제현안

가. 개요

□ 한·호 경제협력관계는 한국이 호주로부터 대량으로 광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한국의 對호주 주요 수출품은 광물과 에너지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농산품이 합류한 형태임.

□ 한국과 호주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중요한 교역파트너로서 교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음.

□ 한·호주간 교역규모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0년부터 8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對호주 무역수지적자폭이 증대하는 이유는 한국이 호주로부터 철광, 석탄 등 제조업부문 원료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은 호주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반면 자동차, 이동통신기기 등 2차산품을 위주로 한 완제품을 호주에 공급하는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92년과 93년에 금액면에서 년간 100% 정도씩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6월에는 총 212건, 6억 1,18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현재 對호주 투자는 광업부문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광업에 대한 투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연탄 광산개발 프로젝트인데, 이는 안정적인 유연탄 수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석유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것임.
  ○ 또한 한국내 석탄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해외석탄개발 투자장려책을 도입한데에도 기인함.

□ 호주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외

환위기 이후 투자가 축소되어 對한국 직접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호주의 對한국 직접투자규모는 2002년의 경우 229만 달러에 그쳤으나 2003년 1월~6월 기간 중에는 총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1억 1,269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나. 주요 통상현안

□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

- 한국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호주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세/비관세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는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음.

- 비관세장벽으로는 ▲호주정부의 빈번한 반덤핑규제, ▲호주의 엄격한 기술 및 안전기준, ▲정부조달부문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금융업에서의 과소자본기준과 역외 차입금규모의 엄격한 제한 등을 들 수 있음.
  - ○ 2001년 현재 규제중인 사안은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3개 건과 가격인상약속이 1건, 조사중인 사안 1건 등임. 1978년부터 2001년의 누계로 보면, 총 규제건수가 83건으로 미국의 96건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 또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엄격한 호주의 기술 및 안전기준은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 ○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 없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자체 입찰을 통하여 조달을 실시하면서 입찰시 국내업체에 우대마진 및 자국 산업발전기준 등을 적용하여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한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한 정부조달제도를 시정토록 요청

- 관세장벽으로는 ▲자동차 및 섬유·의류·신발류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

과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제도가 있음.

□ 교역불균형 시정 요청

- 양국간의 만성적인 교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국산 주종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고관세(15-25%)를 폐지, 수입 증대를 요청
  - ○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10% 단일세율적용(GST)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한바, 자동차, 전자제품,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 2차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 등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

□ 통신사업자 진출

- CDMA 방식전환에 따른 단말기 교체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바, 삼성을 비롯한 국내 통신기기업체의 현지 진출 및 판매 확대 추진
  - ○ 호주정부는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50%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신규 통신사업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

□ 한·호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 타진

- 호주정부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호주 교역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 호주는 2000년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다. 對호주 경제정책 방향

□ 한국은 호주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미국, 동아시아로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및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호주 내수시장을 겨냥한 對호주 수출확대가 절실한 형편임.

- 호주는 서비스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 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의 생산성 연구 및 유통, 마케팅 등에 투자하여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양국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 KBE)를 통한 경제성장에 있어 상호보완적 측면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임.

- 호주는 기초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교육, 연수 등의 프로그램 부문에서, 한국은 과학기술의 산업현장 응용과 마케팅 분야에서 앞서있어, 양국이 협력시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이 보다 빠르게 이행될 수 있음.

- 또한 양국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제삼국에 진출하는 발전된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고려할 만함.

- 이러한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정보통신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을 비롯 21세기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호주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창출효과 및 양국간 산업 보완적 측면과 함께 단기적인 무역전환효과 및 국내 농업부문에 야기될 부정적 영향 등을 연구하고 체결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